

# 맑고 파란 광주 하늘이 그림다



광주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0일 예보등급 중 가장 높은 '매우 나쁨' 수준에 해당하는 162 $\mu\text{g}/\text{m}^3$ 까지 치솟은 가운데 한 시민이 남구 사직타워에서 망원경을 통해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내일 밤까지 미세먼지 '주의보'...환경부, 실외 활동·환기 자제 권고

광주·전남지역에 미세먼지와 열은 황사가 뒤섞인 뿌연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혼탁한 대기상태는 비 소식이 예보된 12일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밤 9시를 기준으로 광주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남도도 지난 9일 오후 전남 동부권에, 오후 2시 서부권에 각각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 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되며,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는 12일 밤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오후 2시 기준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 116 $\mu\text{g}/\text{m}^3$ , 전남 134 $\mu\text{g}/\text{m}^3$ 로, '나쁨' 수준(농도범위 81~150 $\mu\text{g}/\text{m}^3$ )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한때 전남(여수) 354 $\mu\text{g}/\text{m}^3$ , 광주(송정동) 162 $\mu\text{g}/\text{m}^3$ 로 '매우 나쁨' 수준(농도범위 151 $\mu\text{g}/\text{m}^3$  이상)까지 치솟기도 했다. 환경당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화요일인 12일 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미세먼지와 함께 열은 황사가 뒤섞인 뿌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외 활동은 물론 가정에서의 환기도 가급적 삼가 달라"고 말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둘 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알갱이로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중국, 몽골 지역 사막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자연적'인 흙먼지를 가리키는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질산염, 금속화합물 등 '인위적' 오염물질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비방에 폭력까지...총선 막판 혼탁·과열

### 초박빙 나주·화순선거구, 후보 지지자간 유세장 충돌

### 버스 동원 사전투표설도...광주 동남갑 비방 유인물 발견

육설과 폭력을 수반한 상대 선거운동원 유세 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짜라시·괴문자 배포, 관광버스를 동원한 사전투표 의혹까지... 4·13 총선이 이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선거구 곳곳에서 선거운동원과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에 나주시 전통시장 앞에서 나주·화순 선거구 A후보 지지자와 B후보 지지자간 충돌이 빚어졌다. B후보 측은 A후보 지지자들이 B후보 측 연설원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유세 차량에 올라가 승강이를 벌이며 혼동안 유세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후보 측은 "B후보 측 지지자들이 일부러 유

리 후보와 지지자들이 자극시켜놓고 몸싸움을 유도했다. 우리 후보자 측이 되레 피해자다"며 부인했다. 이날 다툼은 A후보 측이 유세를 끝내고 이동하려 할 때 B후보 측 연설원이 A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자 A후보와 후보 측 관계자가 격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B후보 측은 선거 유세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동영상 등 관련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 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원 확인을 거쳐 입건 예정이나, 이번 다툼에 후보자들이 직접 관여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후보자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나주·화순 선거구에서는 지난 8일 관광버스를 동원한 불법 사전투표 의혹도 제기됐다. 나주와 화순지역 마을에서 지난 8일 오전 주민들을 관광버스에 태우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단체 투표를 하고 왔다는 주장을 한 후보자가 하면서 관련 증거물을 선관위에 넘겼다는 것이다. 광주시 남구(동남갑 선거구)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9일 오후 6시에 남구 방림동의 한 주택 앞에서 발견된 A4 용지 크기의 유인물에는 '모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가 인쇄돼 있었으며, 경찰은 해당 유인물을 배포한 인물을 붙잡으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현수막 불법 게재 18개사

### 과태료 3억4천만원 부과

광주시 서구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어 둔 건설업체 4곳을 포함 18개 업체에 과태료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붙이면 1개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18개 업체는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서구지역에 총 1400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걸었으며, 내용은 아파트 분양 및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모집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서구 관계자는 "도심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교통 흐름까지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18명의 단속반을 상시 가동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6, 해질 19:02, 달돋이 09:06, 달질 23:20

### 미세먼지 피하세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10/22	보성	구름많음	9/16
목포	구름많음	8/18	순천	구름많음	11/17
여수	구름많음	11/14	영광	구름많음	7/20
나주	구름많음	8/22	진도	구름많음	7/17
완도	구름많음	9/16	전주	구름많음	10/21
구례	구름많음	9/18	군산	구름많음	7/18
강진	구름많음	7/17	남원	구름많음	9/19
해남	구름많음	6/17	홍산도	구름많음	9/14
장성	구름많음	8/2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안	북~북동	0.5	동~남동	0.5
남부	북~북동	0.5~1.5	동~남동	0.5~1.5
남해안	북~북동	0.5~1.5	북동~동	1.0~2.0
서부	북~북동	1.0~2.0	북동~동	1.5~3.0
남해안(서)	북~북동	1.0~2.0	북동~동	1.0~3.0

### ◇생활지수

☔	주의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보통
🚰	피부질환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5:01	10:03
	17:08	22:14
여수	11:46	05:33
	00:00	17:47

### ◇주간 날씨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	☁️	☁️	☀️	☁️	☁️	☁️
10/21	12/20	12/20	9/23	10/22	11/20	10/21

## “전남대 총장선출 방식 직선제로”

### 교수 50.5% 찬성

전남대 교수들이 정부의 국립대 총장 간선제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방식으로 차기 총장을 뽑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학 측이 전체 교수들의 투표 결과를 거부하는데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대 교수회(회장 김영철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교수회는 지난 4일 오전 11시부터 8일 오후 3시까지 5일간 총장 선출을 위한 직·간선제 방식을 놓고 전체 교수 118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051명의 교수 중 과반이 남

는 531명(50.5%)이 직선제로 총장을 뽑을 것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교수 505명(48.1%)은 간선제 방식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효는 1.4%(15명)였다. 전남대 안팎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받게 될 불이익과 총장 부재 상태가 빚어지고 있는 타 대학 사례 등에 불구, '직선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한 교수회 입장에 주목되고 있다. 행·재정 지원을 내세워 대학 자율성·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교수들의 부정적 시각이 그만큼 팽배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학 본부가 향후 '총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학적·규정 변경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욱기자 dok2000@

## 직위 유지 도의원, 성공보수 8천만원 지급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도의회 성공보수를 약정하며 함소식 변론을 범무법원에 맡겨 직위 유지에 성공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범무법원은 이 도의원을 상대로 수임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범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지법 민사7단독 김용구 판사는 광주 A범무법인 변호인이 전남도의회 B(59)의원을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 소송에서 '의원은 변호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 방지에는 스틸 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색은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고인 단열방수 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새들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 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1599-7652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 새 주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펜션 코티지 영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접 (매인 3000평 분할가능)
-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은 현지답사후 상의 결정 H. 010-3119-6952